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서기록

2022학년도 2학기 정기

일시 2022년 9월 19일
오후 7시

장소 33B101
경영관 계단강의실

22-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서기록

총학생회장 (장필규):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2학기 정기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지난 1학기 정기 회의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오프라인 전학대회입니다.

전학대회는 학생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대표자들이 모여 하반기 학생 자치의 기틀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전학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총학생회가 인준받은 사업과 단과대 학생회가 인준받은 학생회비를 바탕으로 2학기 학생 자치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차기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제5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용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대의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학대회는 정족수 확인, 개회 선언, 의장 및 서기단 소개, 총학생회칙 및 전학대회 운영세칙 안내, 보고 안건, 인준 안건, 논의 안건, 건의 안건 및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정족수 확인을 위한 대의원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호명되시면 대답과 함께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름 석 자만 불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석 부르겠습니다.

(출결 확인)

현재 출석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우선 하나 변경사항이 있는데, 재적 위원이 169명이라고 합니다. 글로벌경영학과 학년 대표가 지난주 목요일에 선출되었는데, 지금 현재 명단에 누락되어 있어서 재적 위원이 169명이고, 참석인원 97명으로 정족수 85명을 채워 19시 14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먼저 드리겠습니다. 잠시 회의장을 나가시더라도 나눠드렸던 비표는 반드시 반납해주셔야 하며, 완전히 퇴장하시는 경우에는 비표와 명찰을 모두 반납해주셔야 합니다.

의결하시는 방법은 비표를 들어서 의결을 표해주시면 되고, 의결 후에 양 끝으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칙에 의거하여 1인 1표, 단위당 최대 2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꼭 밝힌 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립니다. 본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기에 출석위원이 정족수 85명보다 적어지는 순간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자동으로 휴회 됩니다. 60분 남짓으로 예상되오니 부디 참석해 주신 대의원분들께서는 회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장 및 서기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학년도 2학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을 맡은 제54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영상학과 17학번 장필규입니다. 다음 서기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기단으로 인사운영국장 내정자 미술학과 19학번 임서영 학우, 인사운영국 차장 내정자 영상학과 21학번 이지아 학우 소개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총학생회칙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세칙 소개입니다. 모두 자료집을 꺼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집 10쪽과 11쪽의 전학대회 관련 회칙 조항만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제24조 '소집'에 의거하여 소집된 매 학기 초 정기 회의이며, 지금으로부터 13일 전인 9월 6일에 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제25조 6항, 7항, 8항, 10항입니다. 기타 총학생회칙에 대한 부분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집 29쪽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세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안건 상정 등이 이루어질 경우, 본 운영세칙을 바탕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전차 회의록 낭독입니다. 인사운영국장 내정자 임서영 학우께서 2022학년도 1학기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인사운영국장 내정자 (임서영): 안녕하세요, 인사운영국 국장 내정자 미술학과 19학번 임서영입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하겠습니다. 전학대회 자료집 32페이지입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18시에, 경영관 33B101에서 재적 위원 147명 중 79명의 출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개회 선언 후, 의장 및 서기단을 소개했습니다. 의장은 제54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장필규, 서기단은 인사운영국장 임서영, 인사운영국 차장 이지아 학우가 맡았습니다.

이후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세칙을 소개하고, 전차 회의록인 2021년도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록을 낭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 안건 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고 안건은 총학생회 운영, 사업 보고로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자료집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인준안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준안건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입니다. 총학생회 국·차장 내정자 18인에 대한 인준을 진행하였으며, 출석위원 80명 중 찬성 80, 반대 0, 기권 0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준안건은 '학생회비 배분안'입니다. '특별자치기구에 총학생회비의 39%를 배분하고 그중 총학생회에 28%, 동아리연합회에 11%를 배분한다. 단과대학 학생회에 총학생회비의 61%를 배분한다. 이를 단과대학 배분액이라고 하는데, 단과대학 배분액은 기본 배정에 44%, 납부 인원 비례에 23%, 학생 수 비례에 33%를 배정한다. 법과대학 단과대학 배분액을 나누어 각 단과대 학생회로 추가 배분한다.'에 대한 인준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출석위원

80명 중 찬성 73, 반대 0, 기권 7로 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인준안은 예산안입니다. 축제 실무 비용, 대여사업 물품 확대 및 추가 비치, 야외 휴게시설 개선, 외부계단 미끄럼방지 공사, 차기 이월금, 예비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준을 진행하였으며, 출석위원 80명 중 찬성 80, 반대 0, 기권 0으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인준안은 결산안입니다. 제휴 광고비, 대학원 총학생회 후원금으로 받은 수입과 이를 2021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간식 배부, 총학생회 실무복, 겨울 학위복 대여사업 실무단 식사 제공에 지출한 것에 대해 인준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석위원 80명 중 찬성 79, 반대 0 기권 1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습니다.

논의안은 따로 없었으며,

건의 및 기타 질의 사항으로 학교 측에 군 복무자의 경력을 인성품의 봉사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2학년도 1학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폐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차 회의록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장필규):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보고 안건입니다. 자료집 38쪽부터 시작되는데요, 보고 안건은 총학생회 운영과 총학생회 사업 보고 두 가지로 나뉘며, 첫째로 총학생회 운영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반기 전학대회 실시 직후 지금까지의 운영에 대해서만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중앙운영위원회 실시 현황입니다. 2022년 3월 28일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 이후로 지난주 화요일 18시에 진행된 제22차 중앙운영위원회까지 포함하여 도합 15차수 중운, 2차수 연석 중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집행위원회 실시 현황입니다.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2022년 3월 22일 제12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6차수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중앙집행위원회 조직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장단 산하에 9개 집행국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9개 집행국으로는 사무총괄국, 인사운영국, 학사정책국, 문화기획국, 인권복지국, 대외협력국, 홍보소통국, 미디어콘텐츠국, 그리고 졸업준비국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9개 집행국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차장 내정자에 대한 소개는 첫 번째 인준안건인 ‘국·차장 인준안건’ 진행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총괄국은 총학생회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검토합니다. 학생회비, 운영비 등 예산안을 집행 및 결산하며,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모든 총학생회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학교 본부와도 긴밀히 소통합니다.

인사운영국은 중앙집행위원회 내부를 담당하며, 내규, 연락망, 조직도, 각종 서기록을 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학생 사회를 위한 성균인 백인소, Spring Camp, Spring Mate 사업 등을 진행하며, 최근에 오픈한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위해 큰 노력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학사정책국입니다. 학사정책국은 학사와 관련된 다양한 공약을 집행하며,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교무처와 주기적으로 미팅하며 학교의 학사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간사로 참석하여 회장단을 보조하기도 합니다.

문화기획국입니다. 문화기획국은 총학생회 사업 중 문화 관련 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추진합니다. 3월 금잔디 문화제, 5월 대동제, 그리고 다음 주에 열릴 ESKARA '22까지 학내 모든 축제를 총괄하고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인권복지국입니다. 인권복지국은 학우분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폭넓게 다룹니다.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비건 학식, 배리어프리 시설을 도입하였고,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생활을 위해 물품 대여, 야외 휴게시설 개선의 복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국입니다. 대외협력국은 외부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프로모션을 유치하여 학우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1~4탄 웰컴 스프링 멤버십 사업을 위해 발로 뛰었으며, 학교 주변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이외에 간식 배부, 그리고 2022 킹고대장정을 추진하여 학교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국입니다. 홍보소통국은 학우들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소통창구를 총괄합니다. 모든 온/오프라인 사업의 시각화를 담당하며, 총학생회 주관 행사의 홍보물과 굿즈 제작의 업무 또한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콘텐츠국입니다. 미디어콘텐츠국은 행사 및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영상 제작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사업 및 행사의 모습을 학우들에게 현장감 있게 공유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준비국입니다. 졸업준비국은 학위 수여식과 학위복 대여사업, 졸업앨범 제작 등의 졸업 행사들을 총괄합니다. 또한 동문초청강연회 등의 행사를 통해 동문 선배님들과의 교류 네트워크를 주관하고, 올 하반기에 예정된 예비군 학우를 위해 예비군 조직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사업 보고에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럼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다음 사업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총학생회 사업 보고는 권희성 부총학생회장께서 진행해주시겠습니다.

부총학생회장 (권희성):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제54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권희성입니다.

총 32개의 사업 보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통, 학업/학사, 문화와 관련된 사업인 1번부터 12번까지의 사업 보고를 진행한 후 먼저 질의응답을 받고, 남은 13번부터 32번까지의 사업 보고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 주시면 발언권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 관련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총학생회장단과의 오프라인 소통창구, 'Spring Camp'입니다. 해당 사업은 매달 1회 별도의 콘셉트를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Spring Camp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 및 피드백은 담당 집행부 및 관련 부처로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Spring Mate'입니다. Spring Mate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사업의 공백으로 기층 단위 학생회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상된 공약입니다. 먼저 학생회비 총학생회 배분액 중 10%를 줄여 단과대에 배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50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1회 총학생회장단이 단과대 단위운영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소통 및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이전까지 모든 학우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총학생회 공식 소통창구가 부재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학생회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공지 사항, 제휴 업체 등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총학생회직, 단과대 및 학과 등의 학생 자치 단체의 회칙을 아카이빙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록들을 보다 투명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학우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사업은 '성균인 백인소'입니다. 성균인 백인소의 경우 학내 다양한 사안에 대해 성균인의 목소리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열린 공론화의 장입니다. 킥고 아이디 로그인을 통해 홈페이지 내 성균인 백인소 페이지에서 직접 안건을 상정하실 수 있으며, 올라온 안건에 대해 좋아요 또는 댓글 작성을 통해 의견을 더하실 수 있습니다. 상정한 안건이 14일 내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는 경우, 총학생회가 직접 답변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학업 및 학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입니다. 21학년도 결산안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56페이지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도전학기 정규교과프로그램 개선'입니다. 21학년도 도전학기에 시행된 정규 교과 프로그램의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 희망 수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고 해당 내용은 22학년도 도전학기 프로그램에 반영하였습니다. 22학년도 도전학기 시행 후에도,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또 재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신3품 인증제 개편'입니다. 각 품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정리해 교무처와 지속적인 실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반영되어 개선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개선 내용은 자료집 세부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관련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사업은 '2022 금잔디 문화제: 개나리 노란 꽃잔디 아래'입니다. 대학가에서 이루어지는 첫 오프라인 축제라는 점에서 초봄의 이미지를 극대화하였으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가는 축제를 위해 학생 참여 공연, 플리마켓, 액티비티 존 등을 구성하였고 행사의 내실화에 힘썼습니다.

아홉 번째 사업은 '2022 대동제 ESKARA: 뛰어라 세상을 흔들 때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했던 오프라인 대동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축제의 신나고 흥겨운 이미지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주간 부스 및 야간주점, 학생 참여 공연, 아티스트 공연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열 번째 사업은 성균관대학교만의 고유한 행사로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국토 대장정을 재개한 '2022 킹고대장정'입니다. 스태프를 포함하여 100여 명의 성균인이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7박 8일간 제주 애월시에서 제주 하도까지 총 171km를 종주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일정표는 자료집 7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한 번째 사업은 '동문초청강연회 만나:봄'입니다. 동문 선배님이신 이영진 헌법재판관님께서 연사님으로 함께해 주셨으며 해당 내용은 스케치 영상으로 총학생회 공식 유튜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두 번째 사업으로 'SKKU X PHOTOISM 셀프 촬영 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하계 학위수여식을 기념하는 이벤트 프레임뿐만 아니라 성균관대학교의 이미지가 담긴 이벤트 프레임을 기획하여 경영관 필로티에 설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통, 학업 및 학사에 관련한 사업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권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사업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사업으로 매달 20,000원 이상의 어도비 구독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Adobe Creative Cloud Named License 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899개의 명단을 전달하였으며, 지난 9월 1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사업으로 '2학기 교외 상권 및 교내 시설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1학기에도 동일하게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시행하였는데요, 불법 촬영 범죄의 발생을 예

방하기 위해 학기당 1회 진행됩니다. 점검이 완료된 곳에는 안심 화장실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사업으로 ‘출입구 전면 개방’입니다. 학사 운영 정상화에 따라 미개방 출입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지난 4월, 폐쇄되어 있던 모든 출입구를 개방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사업은 ‘건물별 운영 시간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축되었던 시험 기간 열람실 및 자료실 운영 시간, 학생회관 운영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사업은 ‘슬기로운 분리배출 캠페인’입니다. 무분별한 분리배출로 인해 교내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자 진행되었으며 분리 배출 안내 매뉴얼을 리뉴얼하고, 관련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교내 미화 근로자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근로자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사업은 ‘흡연 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흡연 인구의 편안한 흡연 구역 이용과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수렴하고 교내 관리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8월, 흡연 구역 구획화를 진행하였으며, 흡연 구역 내 재떨이 등을 구매하고 교체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사업은 ‘자판기 위치 이동 및 품목 다양화’입니다. 기존에 방치되어 있던 자판기의 위치를 모두 파악 후, 학생회관 등 학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재배치하였으며, 품목을 다양화하여 보다 편리하게 자판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무 번째 사업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야외 계단 미끄럼방지 테이프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앙학술정보관 내부 계단 일부, 학생회관 3층 외부계단, 법학관 외부계단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부착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사업으로 ‘야외 휴게시설 정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관, 수선관 등의 야외 휴게시설의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손상된 시설들을 폐기하고, 새로운 테이블을 비치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사업은 ‘시험 기간 응원 간식 배부’입니다. 지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간식 배부를 진행하였으며 1학기 종강 기념 미니 간식 배부도 진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배부 간식 품목은 자료들 88~89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물세 번째 사업은 ‘시험 기간 및 주말 기숙사 통금 전면 해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었음에도 기숙사 통금은 완화되지 않아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기숙사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지난 5월 시험 기간 기숙사 통금을 해제하였으며, 이번 9월 주말 기숙사 통금을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사업은 ‘비건 학식 시범 운영’입니다. 채식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교내 식당에서도

비건 음식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5월, 비건 학식을 시범 운행하였으며, 옵션을 통해 일반식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선택권 또한 보장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사업은 ‘웰컴 스프링 멤버십’입니다. 웰컴 스프링 멤버십은 학우들이 보다 많이 제휴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상권과 직접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제휴 업체는 총학생회의 인스타그램 링크 트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료집 94~95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사업은 ‘공뿌마켓 무인매대 설치’입니다. 학내 편의점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는 학우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스낵류와 기획상품들을 판매하는 무인 매대를 학생회관 3층 라운지, 국제관 지하 1층 라운지에 설치하였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사업은 ‘GreenCar 제휴’입니다. 공유 차량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제휴 할인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제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달 내에 관련 안내 사항이 총학생회 소통창구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스물여덟 번째 사업으로 ‘현대백화점 미아점과 의류 제휴’를 맺었습니다. 학우들이 면접이나 공식 행사에서 입을 수 있는 남성 정장 및 여성 의류 브랜드에 대한 할인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사업은 ‘인스타페이 온구서점 전공서적 할인 제휴’입니다. 학우들의 전공 서적 구매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 제휴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우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서른 번째 사업은 ‘2학기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운동장이용협의회’입니다. 운동장이용협의회 회칙이 실제 운동장 이용에 적용하기에는 미약한 부분들이 많아 회칙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회칙은 자료집 10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원활히 2학기 평일 운동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동장 사용 시간을 배정하였습니다.

서른한 번째 사업은 ‘2022년 졸업앨범 촬영’입니다. 지난 5월 졸업 예정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사진 촬영이 진행되었으며, 2학기에 2차 졸업앨범 촬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른두 번째 사업은 ‘하계 학위복 대여사업’입니다. 학사 및 석사 학위수여자들이 추억을 남기고 졸업하실 수 있도록 성균관대학교 전통 학위복을 대여하였으며, 금잔디 포토월 또한 리디자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32개의 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32개의 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권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경영학과 1학년 학년대표 (홍관욱): 기숙사 주말 통금 해제에 대해 질문드리는 건데, 그래도 주말 통금 해제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합니다.

혹시 향후에 주말 통금 말고 전체 통금 해제에 대해서 우리 학교와 논의해주실 의향이 있는

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부총학생회장 (권희성): 일단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말 통금이 전면 해제가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해제되지 않았음을 반영하여 이야기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숙사 통금을 전면 해제하는 것은 기숙사를 실제 이용하시는 학우분들의 이해관계가 조금 얽혀있는 내용이라 지금 당장 시행하거나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관련해서 학우분들의 의견이 계속 지속된다거나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추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경영학과 1학년 학년대표 (홍관욱): 감사합니다.

부총학생회장 (권희성): 감사합니다. 혹시 진행한 사업 내용에 대해 또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권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 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장필규): 다음으로 인준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준안건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산하 9개 집행국의 국장, 차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도록 회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정한 국장, 차장들이 인준을 받기 위해 대의원분들께 직접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준을 받고자 하는 국장, 차장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무총괄국 국장 내정자 성권찬 정치외교학과 16학번 학우입니다. 사무총괄국 차장 내정자 경영학과 20학번 최인혜 학우입니다. 인사운영국 국장 내정자 미술학과 19학번 임서영 학우입니다. 인사운영국 차장 내정자 영상학과 21학번 이지아 학우입니다. 학사정책국 국장 내정자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20학번 서성현 학우입니다. 학사정책국 차장 내정자 김원우 학우는 오늘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문화기획국 국장 내정자 의상학과 19학번 이유빈 학우입니다. 문화기획국 차장 내정자 글로벌리더학부 21학번 허윤진 학우입니다. 인권복지국 국장 내정자 한문교육과 19학번 이지현 학우입니다. 인권복지국 차장 내정자 컴퓨터교육과 19학번 김태건 학우입니다. 대외협력국 국장 내정자 영상학과 18학번 조준범 학우입니다. 대외협력국 차장 내정자 경영학과 21학번 박정현 학우입니다. 홍보소통국 국장 내정자 영상학과 20학번 임예진 학우입니다. 홍보소통국 차장 내정자 무용학과 21학번 김예원 학우입니다. 미디어콘텐츠국 국장 내정자 영상학과 20학번 배민아 학우입니다. 미디어콘텐츠국 차장 내정자 영상학과 21학번 김지혜 학우입니다. 졸업준비국 국장 내정자 사회학과 19학번 조인서 학우입니다. 졸업준비국 차장 내정자 컬처엔테크놀로지융합전공 19학번 이예진 학우입니다. 국차장 내정자분들께서는 단상을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당 내정 인준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의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중앙집행위원회 국·차장을 인준한다.’ 찬성하시는 분은 비표를 들어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를 각 좌석의 양쪽 복도로 모아주시면 저희 의결 도우미가 비표를 모아서 집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 비표만 내주시면 됩니다. 현재 찬성하시는 분들의 비표만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상기 중앙집행위원회 국·차장을 인준하지 않는다.’ 즉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면 의결 도우미가 비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기권하시는 대의원분께서 비표를 들어주시면 비표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계 진행하겠습니다.

의결 집계 완료되어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출석 인원 98명, 찬성 98, 반대 0, 기권 0으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학생회비 배분안입니다. 의결 도우미들께서는 비표를 다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의원분들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회비 배분안입니다. 먼저 배분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학기에는 항상 관례적으로 11월에 진행될 선거를 위해서 제5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비용으로 학생회비 전체에서 3,200,000원을 우선적으로 제하고 모든 단위로 배분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기구에 총학생회비의 39%를 배분하는데요, 특별자치기구는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가 있고, 각각 28%, 11%를 배분받습니다.

남은 61%는 단과대학 학생회가 배분받습니다. 단과대학 배분액이라고 하는데요, 단과대학 배분액은 기본 배정액, 납부 인원 비례액, 학생 수 비례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배정액 44%, 납부 인원 비례액 23%, 학생 수 비례액 33%로 저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법과대학 단과대학 배분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법과대학에 현재 재학 중인 학우분을 고려하여 해당 학생회비는 남은 단과대들이 나눠 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결국 단과대학 학생회비가 정해지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학생회비 배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 28%로 8,839,600원, 동아리연합회 11%로 3,472,700원입니다. 단과대학 합계는 19,257,700원이고요, 단위별로 숫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학대학 1,149,638원, 문과대학 3,114,471원, 사회과학대학 3,134,445원, 경제대학 2,522,075원, 경영대학 3,288,612원, 사범대학 1,478,103원, 예술대학 2,193,131원, 글로벌리더학부 1,191,375원, 글로벌융합학부

1,185,850원으로 합계 19,257,700원입니다.

해당 배분액은 최종 학생회비 납부 현황에 따라 소폭 변동이 될 수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등록 인원이 이 숫자를 계산했을 때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액수는 소폭 더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수점 아래의 금액은 편의를 위해서 생략했습니다.

상기 학생회비 배분 결과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경영학과 학생회장 (우상준): 중간에 있는 표 우측 하단에 848,000원 앞뒤로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왼쪽 숫자랑 오른쪽 숫자 중에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학생회장 (장필규): 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이랑 오른쪽 합계가 동일한 것이 맞고요. 왼쪽에는 단과대학 중에 법과대학 848,037원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법과대학에 장기 등록생이 계속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 단과대학을 빼고 계산할 수는 없어서 일단 법과대학을 놓고 계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과대학이 학생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학생회비가 배분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관례적으로 법과대학 단과대학 배분액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대학의 단과대학 배분액을 남은 단위로 또다시 나눠서 합계가 그대로 유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경영학과 학생회장 (우상준): 네, 답변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장필규):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의 사항 있으실까요?

그럼 의결 진행하기 전에 비표 안 받으신 분 계신지 한 번... 네, 저기 위에 계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모든 대의원분들께서 비표 받으신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안건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학생회비 배분안을 인준한다.’ 찬성하시는 분은 비표를 들어 의견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끝 복도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의견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학생회비 배분안을 인준하지 않는다.’ 반대하시는 대의원분들께서 비표를 들어 의견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기권하시는 의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 집계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혹시 비표를 아직 갖고 계신 대의원분 계실까요? 혹시 해당 비표가 어떤 의견이신지...

집계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결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6, 찬성 96, 반대 0, 기권 0으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학생회비 예산 편성안입니다.

네, 저희 총학생회 2학기 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익은 전기 학생회비 이월금으로, 1학기 학생회비 이월금으로 13,759,201원, 그리고 당기 학생회비 8,839,600원으로 수입 총계 22,598,801원으로 예상됩니다. 당기 학생회비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ESKARA '22 실무비용 9,850,000원, 경영관 학부열람실 공기청정기 설치 6,677,600원, 대여사업 물품 추가 비치 1,309,100원, 차기 이월금 2,562,101원, 그리고 마지막 예비비는 재정 운영세칙에서 예비비를 10%까지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2,200,000원 편성하였고 지출 총계 22,598,801원입니다.

하기 지출 내역에 대해 별첨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기획으로 'ESKARA '22 실무 비용'입니다.

이번 ESKARA는 건학기념제를 계승하는 행사임과 동시에, 인사캠과 자과캠에서 각자 진행하던 축제를 인사캠에서만 진행함으로써 건학을 기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두 캠퍼스가 하나되어 건학을 기념하는 축제로 계승, 발전, 확장시키고자 하는데요.

ESKARA '22의 핵심 콘텐츠인 인자전과 응원제에 대한 필요 물품을 학생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팀 조끼 300,000원, 컬링대회폴세트 250,000원, 슈퍼배구폴세트 200,000원, 3인4각바지 200,000원, 버블슈트씨름 600,000원, 자이언트젠가 200,000원, 레이저 서바이벌 2,600,000원, 대형 현수막 3,040,000원, 캐노피 천막 900,000원, 테이블 1,080,000원, 의자 480,000원으로 총계 9,850,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역들은 대여, 즉 렌탈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업 기획으로 '경영관 학부열람실 공기청정기 설치'입니다.

2학기에 오픈한 경영관 학부열람실 다들 가보셨는지요. 학부열람실 공기청정기가 새롭게 전사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환경이 좋아졌는데요, 지금 이쪽에 새집증후군처럼 페인트 냄새도 많이 나고,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학우분들의 의견도 많아서 저희가 공기청정기 5대를 학교와 협의하여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굉장히 큰 타워형 공기청정기로, 현재 중도 열람실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공기청정기이고요, 5대가 6,677,600원으로 현재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대여사업 물품 추가 비치'입니다.

저희가 오피스아워, 즉 총학생회실 상주 업무를 매일 10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학우 분들께서 대여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노후되는 부분들도 있고, 분실되는 물품들도 있어서 몇 가지 새로 구비하려 합니다.

일단 대형 캐노피 현수막 3개에 1,200,000원, LG 노트북 충전기 2개에 19,700원, 그리고 보조배터리 3개 89,400원으로 총계 1,309,1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기 이월금입니다.

차기 이월금은 2학기 필수 사용 부분과 예비비를 제외한 부분으로 2,562,101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학생회에서 2학기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출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질의 있으신 대의 분께서는 거수해주시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조성재):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조성재입니다. 사업기획안 1번에서, 116페이지에 있는 대형 현수막 부분에서, 혹시 이 현수막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총학생회장 (장필규):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축제에 사용하는 현수막으로 세로 3m에 가로 6m 길이입니다.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조성재):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장필규):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대의원분 있으실까요?

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의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저기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님 마이크 한 번만 더 전달 부탁드립니다.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조성재): 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현수막이랑 같은 사이트로 보이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로 3m, 세로 6m로 가격 견적서를 내봤는데 개당 108,000원이 나와서 지금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개당 170,000원이어야 하는데, 가격 차이가 좀 나서 혹시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총학생회장 (장필규): 대형 현수막 말씀이신가요?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조성재): 네, 맞습니다.

총학생회장 (장필규): 대형 현수막 지금 저희가 캡처 화면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대형 현수막이 개수가 한 개가 아닙니다.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조성재): 아, 네. 예산안에는 20개에 3,040,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총학생회장 (장필규): 혹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조성재):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사이트랑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캡처된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를 가진 사이트에 접속해서 해당 가로 3m, 세로 6m로 견적을 내서 봤는데, 지금 개당 108,000원에 견적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108,000원이 20개라고 하면, 3,000,000원보다 더 작으니까, 혹시 다르게 측정이 됐는지 여쭙 보고 싶어서….

총학생회장 (장필규): 잠시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3X6m로 계산하신 건가요?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조성재): 가로 300cm, 세로 600cm로 계산했습니다.

총학생회장 (장필규): 아, 사이즈 차이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3m*6m는 9번의 캐노피 천막이 거든요. 이제 캐노피 천막이 가로, 세로가 3m, 6m고, 대형 현수막과 캐노피 사이즈는 아예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캡처된 대형 현수막의 크기는 가로 2m, 세로 8m로 찍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답변 되셨을까요?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조성재): 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장필규):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 계실까요?

네, 그럼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예산안을 인준한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비표를 들어 양 끝 복도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기 예산안을 인준하지 않는다.’ 즉 반대하는 대의원께서는 비표를 들어 양 끝 복도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안건에 대해 기권하는 의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양 끝 복도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결과 집계하겠습니다.

의결 결과, 집계 완료되어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5명, 찬성 9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상반기 학생회비 결산안’에 대한 인준입니다.

학생회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학기 학생회비 결산안으로, 저희 임기 시작인 작년 11월 28일부터 9월 6일 자 기준까지의 결산안입니다.

수입으로 제54대 중선관위, 즉 작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월금으로 70,470원, 전기 학생회비 이월금으로 17,907,495원, 당기 학생회비 13,036,800원, 예금 결산 이자 17,816원으로, 수입 합계 31,032,581원입니다.

이제까지 지출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여사업 물품 확대 및 추가 비치

로 1,119,380원, 대동제 실무 비용으로 9,950,000원, 외부 계단 미끄럼 방지 공사로 6,204,000원 지출하여, 총 17,273,380원 지출하여, 결산 잔액 13,759,201원입니다. 해당 결산 잔액은 저희 2학기 예산안에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세부 근거 자료는 저희 앞쪽에 영수증이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나와서 보셔도 되고, 회의 끝나고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산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대의원 계실까요?

그럼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결산안을 인준한다.’ 찬성하시는 대의원께서는 비표를 들어 양 끝 복도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결산안을 인준하지 않는다.’ 반대하시는 대의원께서는 비표를 들어 양쪽 복도 끝으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시는 대의원께서는 비표를 들어 양쪽 복도 끝으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집계하겠습니다.

혹시 비표 안 내신 의원 있으실까요?

네, 의결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0명,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후원금 결산안입니다.

후원금 결산안 또한, 세부 증거 자료 및 영수증 등 자료는 앞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총학생회가 학생회비에 의존하지 않고 조금 더 풍부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외부 기업 또는 여러 기타 외부 단체, 학내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 사용하는 금액이고요. 후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후원금 결산을 매 학기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3월 전학대회 이후로 지출된 후원금에 대해서 결산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수입으로 전기 후원금 이월금 2,700,477원, 밝은 성모안과에서 제휴 광고비로 2,800,000원, 고려CCC에서 제휴 광고비로 6,000,000원, 푸드트럭 입점비로 축제 입점비 모두 합해서 6,400,000원, 축제 입점 주식회사 렌지드에서 1,000,000원, 그다음에 대학원 총학생회 후원금 800,000원, 1학기 성대네켓 수익금 9,462,000원, 대동제 물품 대여료 1,569,186원, 대여 물품 손망실 비용 30,000원, 예금 결산 이자 11,172원으로 수입 합계 30,772,835원이고요.

지출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간식 배부로 1학기 중간고사 간식배부에 960,000원 지출했고, 이후 간식 배부에는 후원금 또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식대로 여름 학위복 대여사업 실무단 식사 제공으로 801,160원이 지출되었는데, 해당 금액은 저희 수입에 대학원에서 800,000원 후원해주신 금액을 지출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학위복 대여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학원생들의 학위복까지 총학생회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충에서 식비로 지원

해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총학생회 실무복 구입한 게 218,400원 지출했고, 각종 행사에 지출했는데, 금잔디 문화제 2,500,000원, 대동제 안내 책자 1,300,000원, 영상 촬영 735,700원, 그다음에 대동제 행사 진행을 위한 5,980,000원, 그다음에 킹고대장정 영상 촬영을 위한 장비 렌탈로 수정된 금액이 붙어 있고요, 셀프 촬영 부스 필름으로 700,000원, 삼척시 산불 기부로 9,462,000원 지출했습니다.

후원금 결산에 대해 질의 있으신 의원분 계실까요?

질의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결산안을 인준한다.’ 찬성하시는 대의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쪽 복도 끝으로 모아주시면 의결 도우미가 비표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결산안을 인준하지 않는다.’ 반대하시는 대의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양쪽 복도 끝으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시는 대의원께서는 비표를 복도 끝으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집계하겠습니다.

의결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0명,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저희 지금 정족수까지 5명 더 나가시면 회의가 휴회할 수 있어서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 딱 하나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논의안건인데요,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평소와 다르게 논의안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학기 정기 전학대회에서는 회칙개정소위원회에서 발의하는 학생회칙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인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번 2022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에서는 좀 큰 부분의 회칙에 대해서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여, 제·개정을 추진하기 전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분들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구두로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2022 연석회개소위에서 논의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논의안건은 중앙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모두 거쳐서 전학대회에 상정된 안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의결 사항에는 임시 전학대회를 소집한다고 돼 있는데, 일단 그 전에 먼저 활동 보고부터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석 회칙개정소위원회는 2022년 7월 15일에 양 캠퍼스 총학생회 소통창구를 통해 구성이 공포되었고요,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확대운영위원 10명, 자연과학캠퍼스 확대운영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석회개소위원회 활동 경과로는 총 4차례의 연석회개소위 회의를 진행하였고, 연석 개정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총 6차례 소규모 실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요한 본론인데요, 통합 총학생회칙 제·개정 추진 방향과 체계라는 대체목을 가

지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칙과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칙, 두 가지 회칙으로 분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총학생회칙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이전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2022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는 통합 총학생회칙을 만들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통합 총학생회칙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의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자료가 2017년에 발간된 총학생회칙 해설집인데요. 당시 2017년에 현행 총학생회칙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서 총학생회칙 해설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설집까지 편찬하였습니다. 이 해설집의 17페이지에 추진 배경에서 발췌하였고, 해설집의 더 세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총학생회실로 오시면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작성드린 발췌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학생회 측은 2010년도 회칙 개정안이 양 캠퍼스 전학대회에 상정되어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사캠에서는 해당안이 가결되지 않고, 자과캠에서는 가결되면서 회칙의 분리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년도 전학대회 또한 회개소위에서 ‘통합론’과 ‘분리론’ 중 어떤 노선을 택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최종안으로 도출된 16년도 인사캠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에서는 ‘점진적 통합론’이 채택되었습니다. 17년도 회개소위, 즉 이 해설집을 편찬한 회개소위에서는 ‘부분적 통합론’이 채택되었는데요. 각 캠퍼스 자치기구의 독립적인 운영은 존중하되, 회칙의 분화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양 캠퍼스 총학생회칙을 공동 개정하여 부분적인 통합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써 2017년 세대가 새로운 회칙 체제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유로는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의 부재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회칙에는 아시다시피 오직 ‘캠퍼스별 총학생회’만 존재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라는 표현을 관례적으로 저희가 사용하지만, 회칙상으로는 엄연히 존재하지 않는 기구인데요. 현행은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와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교의 위상을 고려하고, 하나의 대학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라는 단일 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합 회칙 제정으로 유일무이한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를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캠퍼스 독립성이 없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학생사회 전반적으로 연석 운영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습니다. 제54대 연석중운 또한 회의를 총 4차례 개최하였고, 회개소위 역시 전면 연석 운영을 도입하였습니다.

총학생회의 연석 사업이 발달하면서 학우 체감 복지 및 혜택이 증대되었고, 총학생회장단의 단일 선본 출마로 인해 공동 운영 필요성 또한 커졌습니다.

캠퍼스 간 활발한 교류도 꼽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좌 확대, 특히 고명복과 창윤도로 인해 캠퍼스 간 교류가 많이 증대되었고요. 이걸 수치로 보여주는 게 작년 5월 대동제 당시 캠퍼스 교차 확률이 40%에 달한다는 저희의 집계도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지속 가능한 통합 문화 건설을 위한 연석중운 공동선언도 진행하였습니다.

또 다른 큰 이유는 캠퍼스별 회칙의 분화가 심화되었다는 점입니다.

17년에 인사캠과 자과캠 회칙을 굉장히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이후에 계속 캠퍼스별 회칙 개정이 계속되면서 용어가 심하게 분화되었습니다. 아래에는 예시들이 있는데요, 이 밖의 예시들 외에도 많은 용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독립학부’의 개념이나 ‘중앙집행위원회’라는 용어도 다르고요. 상이한 운영도 있는데, 전학대회 소집 조건의 차이도 있고 학생총투표를 인사캠은 총학생회장이 소집할 수 없지만 자과캠은 소집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이한 운영 체계가 다수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통합 총학생회칙을 제·개정하기 위한 이유이자, 배경과 기초를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실까요?

유학대학에 마이크 한 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학대학 4학년 대표 (김서현): 안녕하세요, 유학대학 4학년 대표 김서현입니다.

캠퍼스 간 활발한 교류 말씀해주실 때 이번 5월 대동제 당시 캠퍼스 교차 방문율이 약 40%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집계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총학생회장 (장필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5월 대동제 당시 티셔츠를 배부를 하는데, 자과캠에서는 티셔츠 수량을 인사캠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훨씬 많이 확보를 했고, 티셔츠를 받는 학우들의 학적 사항을 기입을 했습니다.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 데이터가 축제가 끝나고 나니까 40%라고 집계가 나왔습니다.

유학대학 4학년 대표 (김서현):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장필규):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회칙의 구조와 체계입니다. 현재 연석회개소위가 준비하고 있는 통합 회칙의 구조와 체계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렸는데,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와 전회 계층에 대한 재확립이 있습니다.

현행 회칙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현행 회칙에는 ‘본회’와 ‘전회’, 두 가지의 회가 등장하는데, 현행 전회에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와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를 통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하지만 본회라는 단어가 회칙에서 일반적으로 갖는 위상과 대표성을 고려하였을 때 캠퍼스별 총학생회가 아닌 본교 전체를 아우르는 총학생회를 칭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행은 제44조에 들어서야 전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연석전체학생총회를 설명하는 말이죠. 하지만 개정안 예시로는 “제1조,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캠퍼스회의 도입입니다. 전회, 본회를 본회, 캠퍼스회로 바꾸는 과정인데요. 본회는 현재 각 캠퍼스 총학생회를 칭하는 말이지만, 캠퍼스회라는 단어를 도입하여 캠퍼스로 나누어진 본교의 특수한 상황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현행은 “제1조,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개정안 예시에는 “제0조, 어느 조일지는 모르지만, 본회는 캠퍼스 내 독자적인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학생사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양 캠퍼스별 총학생회(이하 ‘캠퍼스회’)를 둔다.”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합 축제를 만들면서 왜 캠퍼스회를 만드냐고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학생사회의 이런 통합 회의체, 즉 중앙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그리고 현재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모두 연석으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캠퍼스의 자체적인 학생자치를 보장하지만, 이 모든 학생자치를 본회, 즉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라는 큰 틀 아래에서 운영하고자 함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으로 연석회의 구조에 대한 재확립이 있습니다.

연석회의 위상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연석회의는 캠퍼스별 회의의 상위 회의체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행이 이미 갖고있는 위상을 반영한 순서를 조정해서 연석회의의 중요도를 격상시킬 수 있는데요. 현행의 회칙의 순서는 1장에서 6장까지 중운이 소개되고, 그다음에 연석회의의 절로서 연석 회의체들이 등장하는데, 개정안 예시로서는 제1장부터 1절과 2절을 총학생회와 캠퍼스 총학생회로 나누고, 2장에 연석총회와 전체학생총회, 즉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총회죠. 그 다음에 4장에 전학대회도 연합대회와 전학대회. 중운도 연석중운과 중앙운영위원회 이런 식으로 재구조를 해서 연석회의의 위상을 제공하는 역할로 하나가 된 성균관대를 더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편 내용 및 논의점입니다. 이런 구조와 체계와 이유를 바탕으로 통합 회칙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인데요.

제1장 총칙에 대한 예시를 저희가 수록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예시이고요. 여기서 좀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1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는 이제 총학생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조는 그대로인데, 3조에 보시면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내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안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원이나 회원의 권리의 의도도 비슷한데, 본회의 구성도 보시면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전체를 이루는 회기 때문에, 양 캠퍼스 총학생회와 연석 회의체들을 꼭 나열하였고, 각 단과대학 및 독립단위 학생회, 학과 학생회까지 전부 본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2절 성균관대학교 캠퍼스 총학생회는 저희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신설하는 절이죠. 그래서 제9조에 “본회는 캠퍼스 내 독자적인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학생사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캠퍼스별 총학생회(이하 ‘캠퍼스회’)를 둔다.”라는 걸 시작으로, “제10조,

캠퍼스회는 성균관대학교 각 캠퍼스 내에 둔다.”, “제11조, 캠퍼스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원 중 소속 캠퍼스 회원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캠퍼스회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1장 총칙에 대한 예시이고요. 이런 구조와 체계를 바탕으로 모든 회칙에 쓰일 수 있다고 저희 연석 회개소위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캠퍼스별 굉장히 상이한 전학대회 대의원 구성 기준입니다. 사실 이 표만 보시더라도 대의원 구성 기준이 인사캠과 자과캠이 굉장히 다른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논의가 어렵고 저도 자과캠의 대의원 구성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한 것은 아닌데, 이 표를 읽어보시면 더 정확히 아실 수 있는데, 자과캠 대의원 구성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 비례를 조금 더 대의원 구성에 담고자 수식 까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식 1번, 2번, 3번으로 A, B, C해서 이제 대의원 구성을 하게 되어있고, 비례대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별 상이한 전학대회 대의원 구성 기준에 대해서 통합 회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이고, 이 대의원 구성 기준에 대해 오늘 전학대회에서 대의원분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중운과 연석 중운, 또 수많은 학생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의원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 요구입니다. 왜 이런 통합 총학생회칙을 만들기 위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수립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페이지인데요. 일단 학생사회의 숙의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2학기 정기 학운, 전학대회에서 완전히 통합된 총학생회칙을 인준하고 발의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심의나 합의를 할 수 없이 총학생회칙에 대해서 가/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럼 이전에 2010년이나 2016년처럼 다 부결이 되면 그냥 그 총학생회칙은 없어지는 건데, 그 과정을 없애고 확실하게 통합 총학생회칙을 만들기 위해서 숙의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친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학기 중에 광범위한 학생사회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충분한 절차를 거쳐 오류와 불합치 지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연석 회개소위 일정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차례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를 추가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올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회칙 개정은 당연히 진행할 것이고요. 향후 회칙 개정안 통과를 위한 의결 과정은, 일단 회칙에 명시된 절차는 아래의 1번 2번 동그라미와 같은데, 이걸 바탕으로 2학기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소집돼서, 아, 죄송합니다. 오늘 정기 전학대회에서 논의돼서 이 해당 안건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바로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게 되고요. 이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통합 총학생회칙 전부 제·개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임시 전학대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석회개소위가 더 많은 회의를 거쳐서 10월 24일 월요일에 중앙운영위원회에 회칙개정안을 제출하고, 그날 당일 또한 연석 중운을 개최해서 회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인준하여 임

시 확운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월요일에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회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인준하고, 바로 곧이어 임시 전학대회에 회칙개정안을 인준하는 과정을 거쳐 11월 1일 화요일에 총학생회칙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한, 결국 안건명은 굉장히 명료해야하기 때문에,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한다.”고 저희가 작성하였지만,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한다.”에 상정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임시 전학대회의 소집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회칙개정안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앞으로 연석 회개소위가 통합 총학생회칙 제·개정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결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만약에 소집된다면, 저희는 10월 31일 월요일로 우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희’는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이고요. 그래서 혹시 해당 안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든 상관없이, 의견이나 질의나 있으시면 거수해주시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앞쪽의 언론사 분께….

성대방송국 보도부(성유진): 성대방송국 보도부 성유진입니다. 그 질문드릴 게 있는데, 그러면 임시 확운이랑 임시 전학대회는 혹시 어느 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인가요?

총학생회장 (장필규): 임시 확운과 전학대회는 당연히 현재 각 캠퍼스에서 개최가 되고요, 현재 회칙 개정도 각 캠퍼스 회의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대방송국 보도부(성유진): 그럼 각 캠퍼스에서 동시에 하는 건가요?

총학생회장 (장필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과캠에서는 확대운영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과캠 확대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조성재):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조성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회개소위를 구성하면서 목표로 하신 것이 통합적인 회칙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주신 계획안을 보면 각 캠퍼스별로 최종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가결 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 결과로 통합 총학생회칙의 공포가 되겠지만, 만일에라도 한 캠퍼스에서는 가결이 되고 한 캠퍼스에서는 부결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통합 총학생회칙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총학생회장 (장필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집 27쪽에 보시면 현재 인사캠 총학생회칙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15장 회칙개정은 1절과 2절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이 양 캠퍼스 공통 회칙 개정인데,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1절이 존재합니다. 1절에 “본회 회칙 중 ‘총칙’, ‘연석회의’, ‘총학생회장단’, ‘비상대책위원회’, ‘선거’, ‘회칙 개정 제1절 양 캠퍼스 공동 회칙개정’에 대한 회칙개정 발의는”, “제112조 (의결), 공동 발의를 통한 회칙개정의 의결은 연석중운을 거쳐 각 캠퍼스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공동 발의를 통한 회칙개정의 의결은 각 캠퍼스 전학대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즉 ‘양 캠퍼스에서 모두 발의를 해서 의결이 진행돼야 통과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예시로 ‘총칙’을 세워드린 만큼, 해당 장에 대한 개정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한 캠퍼스에서 부결이 되면 총학생회칙은 이제 적용이 되지 않고, 현행 인 사캠 자과캠 회칙으로 남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조성재):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장필규):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실까요?

네, 그럼 일단 의견은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안건 1번입니다.

‘통합 총학생회칙 제정을 위한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 및 임시전체학생대표자 회의 소집 요구의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의원께서는 비표를 들어 양쪽 복도 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반대하시는 대의원께서는 비표를 들어 복도 양 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기권하시는 대의원께서는 비표를 들어 복도 양 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집계하겠습니다.

의결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89명,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요건이 충족되었고,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 학생사회의 오랜 소망이었던 통합 총학생회칙 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임시 전학대회에서 좋은 회칙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혹시 논의안건을 발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기타 안건 및 건의 사항, 기타 질의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건의 사항 있으신 분 계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학년 대표(김태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학년 대표 김태림입니다. 지금 다가오는 축제에 외부인 통제하자는 학생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총학생회장 (장필규): 이번 축제 외부인 통제 말씀이시죠?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학년 대표(김태림): 네.

총학생회장 (장필규): 5월 대동제 당시, 예상치 못한 정말 많은 외부인으로 인해 많은 성균관 대학교 학우들이 피해를 보신 점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ESKARA에도 굉장히 많은 외부인들이 올 것으로 저희 또한 예상을 하고 있기에, 외부인 통제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사실 어제 회의도 긴 시간 했고요. 그래서 조만간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외부인에 대한 정책을 확정해서 학우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학년 대표(김태림): 답변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장필규): 네, 혹시 다른 기타 안건이나 질의 사항 있으신 대의원 계실까요? 여기 앞쪽에 손 드신 분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성대신문 보도부(이서현): 네, 안녕하세요. 성대신문 보도부에 이서현 기자라고 합니다. 현재 통합된 총학생회칙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 캠퍼스 간 심리적인 거리감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교류가 얼마나 활발한지에 대해서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저번 학기에는 이제 티셔츠 배부를 기준으로 40%라는 수치를 얻으셨는데, 혹시 앞으로도 이런 수치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어떤 식으로 얼마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총학생회장 (장필규):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5월 대동제 때도 티셔츠 학적 사항을 집계 위해서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나와서 그걸 공유해 드린 상황입니다. 이번 ESKARA는 인사캠에서만 진행되는 만큼 특히 자과캠 학우들이 얼마나 인사캠으로 올라왔는지가 저희로서도 굉장히 축제의 성공을 가리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목요일, 금요일로 잡았는데, 금요일에는 창용디와 고명복 수업 때문에 학부대학 셔틀은 이미 많이 증차가 되어 있어서 자과캠 학우들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자과캠 학우들과 인사캠 학우들 모두 그런 통합 수업으로 인해서 서로 캠퍼스의 심리적 거리가 많이 낮아진 것을 저희도 직접 체감하고 있는데, 이번 건기제에서는 인사셔틀도 저희가 대폭 증차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곧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유의미한 수치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자과캠 학우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입장 팔찌 시스템이 있는데, 자과캠에서 인사캠으로 올라가는 자과캠 학우들에게 입장 팔찌를 바로 먼저 채워드려서 인사캠에서 바로 입장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유의미한 숫자가 집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대신문 보도부(이서현): 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장필규): 혹시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대의원 계실까요?

그럼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기타 안건 및 건의 사항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전학대회에 참석해 주신 대의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위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 드립니다.

언론사 보도와 집행위 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2022학년도 2학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20시 36분 기준으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